

대한민국 식량 공급 · 식품 안전을 지키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재단 2024년도 연보





[목 차]

• 이사장 인사말	02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5년을 돌아보며(이철호 명예이사장)	03
•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의 과제와 미래(안병일 소장)	04
• 임원 및 직원 명단	06
• 2024년도 사업내용	08
– 이사회 개최	
– 연구사업	
– 학술회의	
– 저술 출판사업	
• 2024년도 재무보고 (2024년 11월 30일 기준)	11
• 재단 해산 일지	12
• 이사장 칼럼	13
• 도서출판 식안연 출판현황	20

이사장 인사말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설립된지 어느덧 1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재단은 2024년 10월 29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본 재단의 해산일을 2024년 10월 31일로 결의하였고, 현재 본 재단의 해산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그동안 세계 식량위기의 위험을 우리 사회에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운동과 정책 제안을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50%가 채 되지 않고, 곡물자급률은 23% 수준으로 내려 앉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이 가장 낮은 측에 속해 식량위기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단은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초안'을 발표하여 21대 국회에서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식량안보는 하루아침에 달성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가 중요 정책과제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제 연구재단은 고려대학교에 신설되는 식량안보연구소에 모든 자산과 업무를 이관합니다. 재단은 2024년 11월 15일 그동안 재단을 후원하시고 협력하신 분들을 모시고 재단 해산식과 아울러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개소식을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4년 말인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등 2024년 다양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가 곡물 터미널이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를 공격하여 항구에 적재된 저장 식량이 공격을 받았고, 이에 밀 등의 세계 곡물값 급등 속에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곡물의 27%는 아프리카의 저속득 국가에 수출되고 있어 이들 나라들의 식량공급 중단은 해당 국가 국민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본 재단은 식량문제를 농업의 문제로만 보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품산업의 식량안보 기능을 육성하고 확대하는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2024년 재단의 지정연구과제로 '전분사업의 현황과 지원육성 방안 연구'를 네 분의 연구자가 각각 '전분의 용도와 국내외 생산 이용 현황' (박은영교수, 고려대학교), '전분의 생산 가공과 신기술 개발' (박현진교수, 고려대학교), '전분시장의 특징과 수요 증대의 효과' (안병일교수, 고려대학교), '우리나라 고구마 전분산업의 현황과 지원육성 방안' (이광호박사,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6월 25일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 동관 222호에서 발표하였고,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출판 식안연에서 단행본 '팔십인생' (이철호 저)을 발간하였습니다.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은 국민의 안전한 생명을 영위하는데 제일 중요한 식량안보의 기간 산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식량위기시의 언론과 SNS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식생활에 대한 미디어와 소비자의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 농업을 통한 식량 확보에도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본 재단은 식품산업의 식량안보기능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역할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일에 계속적으로 기여하려고 하였습니다.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새 희망과 새 기운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 탄생하는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식량안보연구소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12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박현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5년을 돌아보며



고려대학교를 정년 퇴임한 2010년은 2007/8년의 세계 곡물 대란과 미국의 금융대란이 겹치고 뒤이은 기상이변으로 세계시장의 곡물 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의 시대였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식량안보의 위기감이 한동안 지속되다가 잊혀지는 것을 보고 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량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식량 위기의 위험을 예측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식품공학과 교수로서 식품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는 것을 보았고, 농업 못지않게 식품산업의 식량 안보적 기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식했다.

깊은 고민 끝에 우리나라 식품 대기업 회장님들께 서한을 보내 앞으로 닥쳐올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식품산업의 기능과 책임을 역설하고, 이 일을 위한 연구재단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서신에 대한 식품산업계의 반응은 놀랄 정도로 뜨거웠다. 삼양식품의 전중윤 명예회장님은 전화를 걸어와 “이 교수, 나는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겪은 사람이야.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있지. 요즘 젊은이들이 배고픈 것을 몰라서 식량을 낭비하고 천시하는 것이 정말 걱정되네. 이 교수가 이일에 적극적으로 정진해 주기 바라네.”라고 격려해 주었다.

명예회장님의 전화에 감동받아 회장님 사무실로 찾아뵈었는데 일본에서 출판된 식량안보 관련 서적 4권을 복사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책과 금일봉을 후원금으로 주시면서 재단 설립을 적극 격려해 주셨다. 회장님 사무실을 나오면서 세계가 놀라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재단 이사회는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삼양사, 대선제분, 동원 F&B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기업의 최고경영자들로 구성되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사회 구성은 평소 가깝게 교류했던 대선제분의 박관희 회장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 제가 식량안보라는 용어마저 생소했던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 대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15년간 연구사업과 대국민 계몽운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재단은 그동안 순수 민간 연구단체로 정부의 재정 보조 없이 40여 건의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며, 30회의 식량안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36권의 관련 서적을 출판하였다.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과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을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전개했다.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내외 식량안보 관련 뉴스와 자료들을 수집하여 공유하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초안’을 작성하여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포했다. 이를 기초로 한 ‘식량안보특별법 제정안’이 2023년 6월 국회 윤준병 의원을 대표로 하는 12인이 공동 발의하였으나 법안소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려고 윤준병 의원실에서 준비 중이라고 한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처음 10년을 제가 이사장을 맡아 운영했으며, 2020년부터 고려대학교 박현진 교수가 이사장직

을 이어받아 수고하고 있다. 재단은 식량안보 연구를 영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고려대학교에 식량안보연구소를 설립하고 재단의 사업과 자료를 이관하기로 하였다. 이 일을 적극 추진한 박현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연구소 설립을 허락해 주신 김동원 고려대학교 총장님과 관련 교수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

식량안보는 우리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과제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민 모두의 준비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신설되는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가 이 위급한 시대에 의미 있는 성과와 족적을 남기기를 바란다.

그동안 재단을 후원해주시고 연구사업에 동참하시고 끊임없는 자문과 격려로 재단을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어지는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에도 계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과 건강의 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 철호

■■■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의 과제와 미래 ■■■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게 된 안병일입니다.

먼저 식량안보연구소의 모태가 된 식량안보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수년간 연자산을 축적하여 본 연구소로 전수해 주신 이철호 교수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식량안보연구재단을 이끌어주시고 본 식량안보연구소 출범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박현진 이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chat GTP에게 식량안보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GTP에서 제공한 답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수 많은 분들의 고민을 정리한 그야말로 모범 답안이겠지요.

식량안보의 역할로 국가안보유지, 경제발전, 국민안전보장, 재해대응, 지역 발전 등 5가지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국가안보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가 식량안보를 유지하면 외교적으로도 강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저도 직접 수행한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식량위기가 도래했을 때, 중동 및 아프리카 40여 개국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나 수천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야말로 해당 국가에서 경제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식량 폭동, 식량자급률, 해당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등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계량 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 식량 위기가 발생했 때 이들 국가들의 GDP가 평균 12.03% 하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식량자급률이 상승할 경우 이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애그플레이션, 국지전 발발 등 급변하는 여건 변화로 인해 인류의 먹거리는 심각한 위협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 수입국으로써 대부분의 식량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환경이 급변할 경우 이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식량 위기는 이제 발생 가능성이 큰 “변수”라기보다는 늘 세계 어디에선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특히 식량안보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안보를 위한 연구소가 정말로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연구로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철호 교수님의 혜안으로 식량안보연구재단이 설립되어 이와 같은 역할을 15년간 이어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출발하는 식량안보연구소는 식량안보연구재단의 유산을 물려받아 국내에서 식량안보연구의 중심이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동북아 지역의 식량안보 연구의 허브가 되고자 합니다.

식량안보연구소는 식품산업신기술연구부, 식량비축 및 식량자급률 연구부, 식량 안정성 연구부의 3개 연구부로 운영이 될 것이며,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지원실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식품산업신기술연구부에서는 수확후 손실 저감, 장기 저장기술, 기타 식품저장 신기술 연구를 중심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며, 식량비축 및 자급률 연구부에서는 식량자급률 향상 및 비축전략, 해외곡물 수입처 다변화 및 해외 공급망 확충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식량안전성 연구부에서는 식량자원의 안전성 개선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미 오늘 개최한 바 있는 “식량안보세미나”를 정기적으로 본 연구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 교육과 홍보사업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식량자급률실천 캠페인, 식량낭비줄이기 국민운동 등이 본 연구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며, FAO, OECD 등의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동북아지역의 파트너 연구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그 외 과학기술한림원과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 수행해 왔던 출판사업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식량안보연구소의 출범의 대표적인 성과중의 하나로 내년 초에는 한국형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제간 비교 결과를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우리나라 식량안보 정책의 방향타가 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식량안보연구소는 전신 재단의 자산을 물려받아 여러모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신생연구소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아직 계획한 목표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식량안보연구소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식량안보 달성을 기초가 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식량안보연구소 소장/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안 병 일

1. 임원 및 직원 명단



【고 문】



박관희 대선제분(주) 고문
펜실베니아대학교대학원 석사
서울상공회의소 제20대 대의원선출
경복고등학교 총동창회장
前)대선제분 대표이사 회장
前)(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장



이명철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내과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내과학 석사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
제9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前)제24대 국군수도병원 병원장



김철하 CJ제일제당 前부회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발효화학 석사
前)CJ제일제당 대표이사
前)CJ제일제당 사장
前)(재)식품안전상생협회 이사장
前)CJ제일제당 부회장
前)CJ기술원 원장

【명예이사장】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덴마크왕립수의농과대학 식품학 박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미국식품공학회(IFT) Fellow
前)미국 MIT공과대학 연구원
前)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前)유엔식량농업기구(FAO) 컨설턴트

【이사장】



박현진 고려대학교 교수 (정년후)
미국 조지아대학교 식품공학과 박사
고려대 식품공학과 석사
미국 클렘슨대학교 포장공학과 겸임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미국식품공학회(IFT) Fellow
前)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장
現)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정년후)

【이 사】



임정배 대상(주) 대표이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前)대상유럽 법인장
前)대상(주) 기획관리본부장
前)대상홀딩스 대표이사
前)대상(주) 전략기획본부장
現)대상(주) 대표이사



최낙현 (주)삼양사 대표이사
전북대 경영학과 졸업
동국대 MBA(석) 졸업
前)삼양사 식품BU 영업총괄 상무
前)삼양사 식품BU장 부사장
現)(주)삼양사 식품그룹장
現)(주)삼양사 대표이사

【김상익】



김상익 CJ제일제당(주) 식품한국대표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前)CJ제일제당 온라인/
외식마켓사업팀장
前)CJ제일제당 경원 SU長
前)CJ제일제당 식품영업본부장
前)CJ제일제당 식품사업운영본부장
現)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

【이 사】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美 Purdue 대학교 이학박사
 서울대학교 식품공학 농학사
 前)한국식품과학연구원장
 前)농어촌상생포럼 부회장
 現)규제심판부 규제심판관(국무총리실)
 現)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민간위원(국민의 힘)
 現)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서형수 영흥식품(주) 회장
 경원대학교 경영대학원 마케팅 석사
 서울대학교 생명공학BIO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 KIST 최고
 경영자과정 수료
 現)영흥식품(주) 회장
 現)서룡산업식품 회장

【감 사】



이광호 한국식품산업협회 前부회장
 미국 럭거스대학교 식품과학과 박사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사
 前)한국식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前)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특임교수
 前)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저감화
 추진단장
 前)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장



손홍석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박사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학사
 前)동신대학교 한의예과 교수
 現)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재단 사무국】



박병찬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장
 흥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ADMP 수료
 現)중소기업중앙회 미래혁신위원회 위원
 現)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천군 상공회
 회장
 現)(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장
 現)성찬식품 대표



김미경 사무간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

〈재단 자문위원〉



신동화
 교수 (위원장)
 전북대
 명예교수



조재선
 교수
 경희대
 명예교수



이군호
 사장
 식품음료신문
 사장



박형희
 회장
 한국외식정보
 대표



권대영
 박사
 (전)한국식품
 연구원장



채수완
 교수
 전북대
 의과대학



박용호
 교수
 서울대
 수의과대학

2. 2024년도 사업내용 ::::

2-1. 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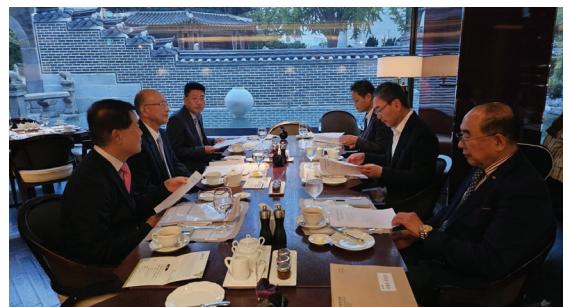
(1) 1차 정기이사회

- * 일시 : 2024년 4월 23일 07:30~09:00
- * 장소 : 조선호텔, 나인스케이트
- * 참석자 : 이철호 명예이사장, 박현진 이사장, 임정배, 김명철, 최낙현, 서형수, 김상익 이사
- * 회의 내용 : 2023년 업무보고 및 결산보고, 2024년 사업계획 심의, 2024년 운영예산 심의, 재단 사업을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에 이관 (재단 해산 결의 함)



(2) 2차 정기이사회

- * 일시 : 2024년 10월 29일 07:30~09:00
- * 장소 : 조선호텔, 나인스케이트
- * 참석자 : 이철호 명예이사장, 박현진 이사장, 임정배, 최낙현, 서형수, 김상익 이사
- * 회의 내용 : 2024년 업무보고 및 가결산보고, 재단 해산 결의(해산일:2024년 10월 31일), 청산인 (박현진 이사장) 선임, 잔여재산 처분(고려대 '식량안보연구소'에 출연금 1억 기부) 결의



2-2. 연구사업

(1) 2024년도 재단 연구과제

가. 지정과제 – 전분산업의 현황과 지원육성 방안 연구

- 1) 전분의 용도와 국내외 생산 이용 현황 – 고려대학교 박은영 교수
- 2) 전분의 생산 기공과 신기술 개발 – 고려대학교 박현진 교수

- 3) 전분시장의 특징과 수요 증대의 효과 –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
 4) 우리나라 고구마 전분산업의 현황과 지원육성 방안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광호 박사
 * 연구기간 : 2024년 1월 ~ 6월 (6개월 과제)
 * 연구비 : 2,000만원(연구비, 세미나 개최비용)
 * 2024년 6월 25일 제30회 식량안보세미나 '전분산업의 현황과 지원육성 방안' 개최

2-3. 학술회의

(1) 제30회 식량안보세미나 – 전분산업의 현황과 지원육성 방안

- * 일시 : 2024년 6월 25일(화) 14:00~17:30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222호
- * 주최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산업협회
- * 발표자 : 박은영, 박현진, 안병일, 이광호
- * 지정토론자 : 이철호, 권대영, 서동희, 서형수, 이군호, 한정숙
- * 참석인원 : 40여 명, 자료집 100부 제작 배포
- * 자료집 : 농식품부 장차관, 식약처장 등 80여 명에게 송부



(2) 식량안보간담회

가. 제26차 식량안보간담회

- * 주제 : '전분산업의 현황과 지원육성 방안' 연구 중간발표
- * 일시 : 2024년 3월 15일(금) 11:00~13:30



- * 참석자 : 이철호, 박현진, 박관희, 이명철, 신동화, 서형수, 이종규, 민병철, 이광호, 안병일, 박은영, 이가형, 한정숙
- * 장소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412호

(3) 한국식품과학회 2024년도 총회 학술대회 발표

이철호 명예이사장은 7월 3~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한국식품과학회 총회에서 '한(韓)민족 음식문화의 기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9(5):235~245에 '대한해협연안의 원시토기문화에 관한 소고'를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2-4. 저술 출판사업

(1) 단행본 (도서출판 식안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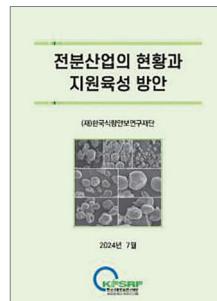
가. 八十人生(팔십인생)

- * 저자 : 이철호
- * 출판일 : 2024년 2월 15일
- * 출판부수 : 초판 500부
- * 기증 : 300여 명



(2) '전분산업의 현황과 지원육성방안' 연구보고서 발행

재단의 2024년도 연구과제로 수행된 '전분산업의 현황과 지원육성방안' 결과보고서가 발행되었다. 보고서는 이철호 이사장의 머리말에 이어 박은영 교수의 '전분의 용도와 국내외 생산 이용 현황', 박현진 교수의 '전분의 생산 가공과 신기술 개발', 안병일 교수의 '전분시장의 특징과 수요 증대의 효과', 이광호 박사의 '우리나라 고구마 전분산업의 현황과 지원육성 방안'과 전문가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인터넷 월간 뉴스레터 발간

- 가) 뉴스레터 161호(2024년 1월) ~ 170호(2024년 11월) 발간, 홈페이지 게시
- 나) E-mail 메일링 리스트 2,000여 명에게 발송

(4) 홈페이지 관리운영

뉴스기사 137건, 추천도서 4건, 보고서 7건, 논문 3건, 발표/강의 자료 1건, 세미나 자료집 파일 3건, 동영상 4건 등

3. 2024년도 재무보고 (2024.01.01 ~ 2024.11.30.)



(단위: 원)

수 입		
항목	내용	금액
후원금	영흥식품(주)	10,000,000
	삼양사	20,000,000
	대상(주)	20,000,000
	CJ제일제당	20,000,000
	개인후원	200,000
	소계	70,200,000
이자 수익	이자&세금환급	3,496,134
세미나 지원금	한국식품산업협회	10,000,000
	한국쌀가공식품협회	5,000,000
도서 판매 수익	식안연 발간책자	2,963,440
퇴직적립금(해지)		36,000,000
합계		127,659,574
전년이월		22,866,841
총 계		150,526,415

지 출		
항목	금액	
인건비	29,236,200	
복리후생비	800,000	
4대 보험료	5,840,300	
세금과 공과금	867,080	
홍보비(홈페이지)	3,630,000	
운영비(세무사)	3,750,000	
운영비(DM 발송)	704,940	
운영비(기타)	15,378,777	
통신비	217,540	
유인물비	5,206,520	
회의비(자문료 등)	4,300,800	
연구용역비	7,296,000	
소계	77,228,157	
출판사업	편집, 번역료	1,048,710
	해외도서 구입비	5,998,500
	인쇄비	2,794,000
	배본료	5,382,727
	소계	15,223,937
총 계		92,452,094

수 입	127,659,574
잔 액 (전년도 이월)	22,866,841
지 출	92,452,094
출연금	100,000,000
총 잔액	158,074,321

4. 재단 해산 일지



4-1.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준연구소) 설립 승인 (2023. 11. 02)

4-2. 재단 기금 1억 원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기부 약정 (2024. 04. 05)



재단의 사업을 2024년 말에 종료하고 고려대학교에 신설되는 식량안보연구소에 재단의 사업과 자료를 이관함에 따라 재단 기금을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다. 재단 기금은 2010년 재단 설립 당시 이철호 교수가 부인 노승옥 교수(前신흥대)와 뜻을 모아 재단 출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한 것이다. 지난 4월 5일 재단의 박현진 이사장과 이철호 명예이사장이 고려대 김동원 총장을 만나 발전기금 기부 약정식을 가졌다.

4-3. 2024년 2차 정기이사회에서 재단 해산 결의 (2024. 10. 29)

4-4. 재단 해산등기 완료 (2024. 11. 14)

4-5.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제1회 식량안보세미나 개최 및 재단 해산 만찬 (2024. 11. 15)



5. 이사장 칼럼



세계적인 식량위기, 준비되어 있나? (성서와문화, 2024년 겨울호)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지구촌의 기후변화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서양이 대규모 허리케인을 일으켜 북미대륙을 강타하고 있으며 태평양의 엘리뇨 현상으로 동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전례 없는 홍수와 가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후는 식량 생산을 어렵게 하여 80억 명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농업 기구(FAO)의 통계에 의하면 약 10억 명이 기아선상에서 배고픈 밤을 보내고 있으며, 매년 6백만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다고 한다. 식량공급이 안정적이지 못해 끼니를 거르며 영양결핍을 겪고 있는 인구가 24억 명에 달한다고 한다. 삶의 터전을 잃은 기아 난민들이 아프리카에서는 유럽으로, 중남미에서는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세계의 식량위기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만성적인 식량부족 지역 – 장기간 가뭄과 사막화 등 자연재해로 식량이 부족하나 가난하여 국민 대부분이 식량을 구입할 수 없는 나라들로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과 서남아시아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나라들은 유엔 차원에서 FAO 등이 식량 생산 시스템의 개선, 지하수 개발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 ② 전쟁 등 분쟁지역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과의 분쟁 악화, 아이티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란, 미얀마의 내란 등으로 식량 생산이 중단되고 주민들이 난민으로 전락한 지역이 많아지고 있으며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인도적 국제 구호기관들이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 ③ 선진국 저소득층의 식량부족 – 전체적으로는 부유한 국가지만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저소득층이 식량위기 사태로 내몰리는 경우가 미국과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푸드스탬프 (SNAP) 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 식량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 반액할인 지원이나 일부 자선단체에서 하는 무료급식 봉사가 있으나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 ④ 잠재적 식량안보 취약국 – 부족한 식량을 수입할 능력이 있으나 식량자급률이 낮아 기상이변이나 금융대란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거나 국제분쟁에 휘말려 식량을 수입할 수 없을 경우에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될 나라들로 한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예이다. 요즘같이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시대에 가장 위험한 나라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에 대해 두 나라가 대처하는 자세에서 큰 차이를 보여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년 전부터 한국을 식량안보가 가장 취약한 회원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현재 20%로 무역자유화가 시작된 1995년의 자급률 30%에서 10%나 하락하였다. 반면 일본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5년의 곡물자급률 29%에서 현재 30%에 머물러있다. 한국 정부는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수입곡물을 제외한 식용곡물 자급률 45%를 식량자급률이라고 공표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쓰지 않는 식량자급률이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국민이 실상을 보지 못하면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해외농장 개발과 해외 곡물저장 창고사업을 줄기차게 지원하여 유사시 해외 곡물을 스스로 사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식량자주율이 100%를 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과 식량자주율이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공공비축미를 FAO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연간 수요량의 18%(80만 톤)를 비축하고 있다. 이 양은 곡물을 수송하는 화물선이 한반도에 접근할 수 없는 유사시에 우리 국민이 2개월 생존할 수 있는 식량이다. 아무리 국방력이 강해도 식량이 없어 더 견디지 못하게 된다. 우크라이나가 1년 반이 넘도록 강대국 러시아에 항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식량비축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냉전시대에는 분쟁의 핵심 축이 대서양에서 한반도 주변 태평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한반도로 오는 곡물 수송선의 항로가 봉쇄될 위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세계 유일의 휴전 중인 분단국으로 예기치 않은 전쟁이나 통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식량안보 의식은 너무나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10여 년 전부터 공공비축미에 더하여 통일을 대비한 통일미 120만톤을 항시 비축할 것과 북한 주민의 식량 지원을 위해 남한에서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 제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식량위기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식량부족 상태에 빠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전체 식량에너지 자급률이 35%인 상황에서 식품산업이 모자라는 식량을 세계시장에서 구입하여 공급하므로 식품산업의 식량안보기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식량안보는 식량 생산을 주관하는 일개 부처의 소관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식량안보를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협업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한 위기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연구재단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식량안보 특별법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식량안보 특별법 제정안'이 2023년 6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법안소위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다. 권력 쟁탈에 눈이 멀어 국민이 먹고 사는 일에는 관심도 없는 우리 국회의 민낯이다. 일본 의회는 식량안전보장을 위해 기존의 농업기본법을 보완 강화했으며, 금년 6월에는 '식량공급곤란사태 대책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금년 6월부터 '식량안보보장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도 최근 식량안보법을 개정 보완하여 세계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인 한국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가짜뉴스와 범죄자들의 선전 선동으로 뒤틀어진 정치쇼에 현혹되어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7년의 풍년에 뒤이은 7년의 흉년을 예언하고 미리 준비하여 이집트를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식량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만민이 평등하게 산다는 꿈 같은 허위 선전으로 공산주의 실험을 감행한 소련연방도 2차대전 때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수천만 인민을 굶어 죽게 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볼 때 국내·외에서 식량위기의 면구름이 엄습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비교적 안정되고 부유한 현 시점에 우리가 식량을 충분히 비축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무서운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식량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급되는 식량의 1/3을 먹지 않고 쓰레기로 버리는 낭비 습관을 고쳐야 한다. 국민 각자가 식량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가정마다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양분된 국론을 나라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하나로 뭉치는 일에 온 국민이 슬기를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다. 하나님은 결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 국민이 바른 자세로 이 나라와 내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

식량안보 위협하는 GMO 망령 (식품음료신문 12월 10일)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명예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유전자변형(GMO) 신품종을 개발해 식량으로 사용한지 어언 30년이 되고 있다. 병충해저항성 옥수수를 재배하여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고 아플라톡신의 오염이 줄어든 양질의 식량을 세계 어디에서나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 제초제내성을 가진 콩, 옥수수, 카놀라 등 신품종으로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등 과장지대에서 식량작물을 대규모로 경작하여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옥수수와 콩의 80% 이상이 유전자변형 신품종이다. 식량의 대부분(곡물의 경우 80%)을 수입해 먹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수입곡물의 대부분이 유전자변형 신품종이며 음식과 가축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들 신품종을 먹고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없으며, 유전자변형 작물의 재배와 이용을 까다롭게 관리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서도 유전자변형 신품종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의 억지주장에 밀려 국가 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농촌진흥청의 GM작물사업단을 해체하여 사실상 생명공학 신품종 연구를 중단한 상태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정상급의 생명공학 연구 인프라와 능력을 보유한 나라였다. 황금쌀 개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레스베라트롤 함유 가능성 벼, 가뭄저항성 벼, 가뭄저항성 콩 등 세계적인 품종개발에 성공했으나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인체위해성 협의심사에서 승인이 지연되어 외국으로 팔려가거나 공여되고 있다. 수천억 원의 국가 연구비를 쏟아 봇고도 일부 극렬 단체들의 잘못된 반대에 부딪혀 연구자들의 승고한 노력이 좌절되고 있다. 작물육종의 천재 학자 우장준 박사의 뒤를 이어 종자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대한민국이 일부 이념 단체와 정부 책임자들의 우매함으로 인해 암초에 걸려 종자 후진국이 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이 확인되고 우리가 먹고 있는 거의 모든 식품에 GMO 작물이 사용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까지 GMO를 괴물처럼 공포감을 확산하면 반대론자들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내세워 완전표시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합정이 있다. 우선 GMO가 먹을 수 있고 안전하다면 특별히 표시할 이유가 없다. 완전표시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껏 행한 반사회적 거짓주장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이다. 현행 표시제도는 가공을 통해 변형유전자나 이로부터 발현된 단백질을 완전히 제거한 식품원료(식용유, 전분당, 간장 등)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극히 과학적인 표시기준이다. 미국, 일본 등 유럽연합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는 표시기준이다. 만약 한국이 여기에서 예외가 되면 국내 식품산업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되며 세계시장에서 식량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식량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GMO 완전표시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더 큰 이유는 이 제도가 불러올 사회적 파장이다. 우리 음식에 앞에 예를 든 식용유, 전분당, 간장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몇이나 될까?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슈퍼에 진열된 식품 대부분에 GMO 표시가 붙게 된다. GMO를 괴물처럼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슈퍼에 먹을게 없다”고 아우성 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2008년의 광우병 대란은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식량대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내걸었으나 시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디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의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보다 먼저 GMO의 안전성과 유용성을 국민에게 더 열심히 알리고 생명공학기술을 발전시켜 종자선진국의 길을 여는 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이철호 교수를 흡모하며

문갑순 (인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명예교수)

어제 그제 이철호 교수로부터 초청을 받고 이 교수가 설립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해단식에 참석하였다. 이 교수와는 "한국콩박물관건립위원회"으로 함께 활동하며 경북 영주에 콩박물관을 설립한 것이 인연이 되어 이 자리에 초대받게 되었던 모양이었다.

참가하고 보니 한국식품학계의 쟁쟁한 원로들이 다 모인 것 같아서 약간 안절부절못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철호 교수와 사모님을 뵙고, 우리가 콩박물관을 짓기 위해 노력하던 원년 멤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 기뻤다. 못 보던 사이에 위원들의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더해져 있었으나 그래도 대구에서 올라온 황영현 교수와 충주에서 올라온 김석동 박사의 정열에는 여전히 청년의 기개가 느껴졌다. 나는 〈고국〉 9권을 집필한 김이오 작가 곁에 앉았다.

이날의 모임은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을 해단하고 고려대학교에 〈한국식량안보연구소〉를 새로이 개설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한국식량안보재단〉은 이철호 교수가 15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이끌어 온 연구재단이었다. 따라서 이 자리의 주인공은 이철호 교수였다. 모두들 입을 모아 이철호 교수의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앞날의 평안을 빌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철호 교수를 흡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으므로 내 마음의 격동에 따라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이 되었다.

이철호 교수는 1945년생이니 해방동이이다. 이 교수의 자서전 〈광복 70년 인생 70년〉에 의하면 이 교수의 고향은 함경북도 흥원면 삼호면이었다. 이 교수의 할아버지는 삼호면에서 명태 장사로 큰돈을 벌었고, 정미소와 목재소도 가지고 있어 당대의 재벌에 해당하는 분이셨다. 자식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할아버지 덕분에 이 교수의 아버지는 연희전문을 졸업하였고 삼촌과 고모들은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 해방이 되고 이북에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아버지는 반동분자로 죄수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그 후 행적을 알 수 없이 되었다.

1.4 후퇴 때 이 가족은 함흥에서 흥남까지 눈길을 걸어 미군 LST의 줄사다리에 결사적으로 기어올라 거제도로 올 수 있었다. 출발부터가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드라마와 유사하다.

거제도에서 초등학교를 보낸 이철호는 1955년 어머니의 결단으로 서울로 오게 되었다. 가난했던 소년은 택시 조수와 엘리베이터 보이도 하며 가난과 싸우는 중에도 기죽지 않고 영어 단어를 외웠다. 고려대학교 농예화학과에 입학시험을 치르고 소년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하느님, 만일 나를 합격시켜 주시면 농업을 연구해서 배고픈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느님은 소년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철호는 그의 기도대로 농업을 연구하여 여든이 넘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우연한 기회에 덴마크 농업 유학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덴마크의 왕립농대에서 농업 박사를 받은 그는 미국 MIT에서 4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교수로 돌아왔다. 그동안 그는 많은 독서를 하며 내실을 키웠고 가급적 산업체 방문의 기회를 만들며 국제학술대회를 꾸준히 참석하여 학문적 토대를 쌓았다.

이 교수는 콩단백질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다. 당시 KIST에 계시던 권태완 박사의 명성을 익히 들었던 그는 귀국하자 권태완 박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권태완 박사의 연구 태도와 인생관에 깊이 감명을 받게 되었다. 권박사님도 이 교수의 충명함과 열성을 알아보시면서 이것이 두 사람의 연대를 이루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식품학계에 두 사람은 학회를 만들고 한국의 전통발효기술에 대한 영문 문헌초록집을 만들어 우리 기술을 해외에 소개하고 한국식품문화총람을 만들어 후학들에게 소중한 자료를 남겼다. 물론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다. 그 당시 선각자 식품학 관련 연구자들의 열성과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권태완 박사님은 필생의 소원인 한국콩박물관의 건립 사업을 이철호 교수에게 부탁하였다. 이 교수는 권박사님의 염원을 들어 1998년부터 콩박물관 건립을 위해 매진하였다. 이 일에 내가 미력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었으니 이것이 나와 이 교수의 인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교수는 아무도 이루지 못할 추진력과 집중력으로 이 일을 추진해 2015년 4월 마침내 영주시에 콩세계과학관 개관식을 이루어내었다. 이철호 교수의 집념과 추진력이 구심력이 되었음을 나는 감히 말하고 싶다.

이철호 교수는 해방동이로 태어나, 흥남에서 미군 군용선을 타고 남한으로 내려온 자신이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썼다(〈광복 70년 인생 70년〉에서). 정년을 맞아 그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무슨 일인가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 일이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의 설립이었다. 그는 식품학 연구 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세계는 식량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우선 사제 1억을 털어 재단을 설립하였고, 이 교수의 취지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열성적인 지원을 보내주었다.

재단 창립 발기인 총회가 2010년 4월 27일이었으니 재단 해단식이 이루어진 오늘(2024년 11월 15일)까지 무려 15년간 그는 외로이 이 일을 이루어 내었다. 그동안 저서와 세미나와 연구논문과 〈10년 사〉 발간 등 거론하기에도 벅찬 업적들이 많았지만, 매달 발행되던 뉴스레터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169회나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재단의 노력을 방증한다. 이 모든 일이 한 사람의 집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존경스럽고 눈물겹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단은 이제 〈한국식량안보연구소〉로 발전하여 고려대학교 내로 편입하게 되었다. 이제 대학의 지원과 훌륭한 교수들, 학생들의 노력에 의해 연구소는 더욱 크나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철호 교수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어 이 교수의 초대에 즐겨 응하였다. 그 자리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한방 가득 하였다. 내 눈에는 한국식품학계의 기라성 같았던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았다. 나는 이철호 교수의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반가운 얼굴들과 악수를 나누며, 한담을 나누는 기쁨을 누렸다. 자리는 식사를 하고 밤늦은 시간에 파하였다.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노학자들이 “아이고 다리야! 허리야!”를 연발하는 모습을 훔쳐보면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기린 영화 〈전국전쟁〉을 보고 난 후의 소감 비슷한 감격이 치솟았다. 이제 어제의 영웅들은 늙어간다. 어떤 분들은 돌아가셔서 이 자리에 오시지도 못했을 터였다.

우리 시대가 저물어간다는 것이 확인했다. 서글픔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우리 시대가 노력한 많은 것들이 자랑스럽게 회상되기도 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어받아서 〈한국식량안보연구소〉를 발전시키고 국민들과 정책담당자들에게 식량자급의 중요성에 대해 깨우치는 소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동안 이철호 교수님 수고 많으셨다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다시 전한다. 그리고 이제는 늙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연구자들에게도 편안한 여생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모두들 격랑의 대한민국 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참고문헌 : 이철호저 〈광복 70년, 인생 70년〉, 〈팔십 인생〉



Primitive Pottery Culture

대한해협연안의 원시토기문화에 관한 소고

이 철호*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A Study on the Primitive Pottery Culture of the Korea Strait littoral

Cherl-Ho Lee*

Department of Food Technology, Korea University

Abstract

In archaeology, the discovery of pottery is treated as an important indicator of human civilization, and the history of human development is divided according to its form and pattern. However, through the eyes of a food scientist, mankind's first bioreactor can be seen in earthenware. The oldest pieces of pottery ever discovered (before 10,000 BC) are being excavated in Northeast Asia, and the author is asserting the hypothesis that the coast of the Korea Strait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a birthplace of the Primitive Pottery Culture. The use of earthenware marks the beginning of boiling culture and fermentation technology, and is the origin of the Korean people's traditional food culture including *Tang* and *Jjigae* (stew) culture and *kimchi* and *jeotgal* (fermented fish) culture. Among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China, Korea, and Japa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inferring that Korea Strait is a birthplace of primitive pottery culture. These are discussed with a focus on the unique food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Lee et al. *Journal of Ethnic Foods* (2024) 11:39
<https://doi.org/10.1186/s42779-024-00254-2>

Journal of Ethnic Foods

REVIEW ARTICLE

Open Access



Ethnic fermented foods of the world: an overview

Cherl-Ho Lee¹, Junyoung Ahn¹ and Hong-Seok Son^{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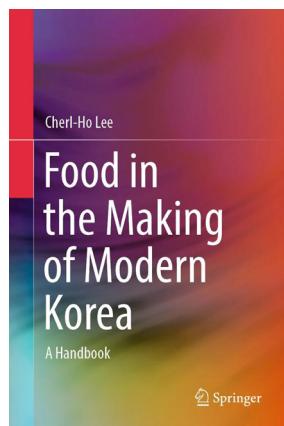
Abstract

The origins of traditional fermented foods and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fermented foods by region are reviewed. Fermented foods are classified into alcohol fermentation, acid fermentation, carbon dioxide (bread) fermentation, and amino acid/peptide fermentation, and related fermentation technologies for each region are introduced. The raw materials, microorganisms involved, and usage of ethnic fermented foods are reviewed and compared one another. The beginning of food fermentation technology is related to the invention and use of earthenware, and Northeast Asia is presumed to be one of the birth places. During the period of primitive pottery culture (8000-3000 B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astal region of Korea Strait, boiling technology of food materials using pottery and salt manufacturing technology from seawater were developed, and at the same time, alcohol fermentation using grains and salt-fermentation of fish and vegetables emerged. In the West, where people were nomads, a roasting/grilling culture was continued for a long time, and technologies for fermenting fruit wine and milk products such as cheese and yogurt were developed. As a result, fermentation was mainly used for enhancing the taste of plant foods in the East, while for extending the shelf life of animal foods in the West. The production of salty and meaty flavors from soybeans and marine products by fermentation in East Asia is a technology that increases the value of low-quality proteins.

Keywords Early history of food fermentation, Classification of fermented foods, Microorganisms in ethnic fermented foods, World map of fermented foods

Food in the Making of Modern Korea: A Handbook

Author: Cherl-Ho Lee
Book© 2024, Springer



Contents

-
1. Introduction
 2. Food Situation in the Social Changes of the Late Period of Joseon
 3. Japanese Extortion and the Korean Food and Nutritional Status during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4. Establishment of Republic of Korea and the Food Situation during the Korean War
 5. Korea's Food Situation in relation to the May 16 Military Coup and Economic Development
 6. The Korean Economy and Food Security in the Process of Trade Liberalization
 7. Food Issues and Safety Managemen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8. Changes in Food Situ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75 Years of Division
 9. The Food Crisis in the New Cold War Era and Korea's Response
 10. Global Vision of the Korean Food Industry
- APPENDIX: Food and Policy: Korean Rice Policy

About this book

This handbook offers an updated and comprehensive presentation of knowledge on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food history. It covers the changes in food availability, nutrition, and the health status of Koreans, and the Korean food industry's development from the late period of Joseon dynasty in the mid-19th century, to the present. This period includes the severe poverty and food shortage of the Joseon dynasty, followed by the Japanese invasion, Independence and the South-North division, the Korean war, and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The influenc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and political changes during the last 150 years on the Korean food security and the nutritional situation of the people is demarcated. In doing so, the author makes novel suggestions on possible contributions to alleviate the world food crisis in the future. Relevant to food historians and food scientists, and East Asian studies scholars with a particular interest in Korean culture and history, this is a pioneering work that elucidates the driving forces for the development and betterment of Korean society—through food acquisition.

도서출판 식안연 출판현황

2024년 11월 현재

도서명	저자	초판년도	발행부수(판수)	정가(원)	현재재고
음식오케스트라	이철호	2012	1,000	8,000	83
식량전쟁	이철호	2012	2,000(2쇄)	12,800	풀절
FOOD WAR 2030		2013	500	20,000	25
식품산업 한식세계화에 날개 달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편	2012	2,000	25,000	240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이철호, 문현팔, 김세권 김용택, 박태균, 권익부	2012	1,500(2쇄)	16,000	15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2015	500	25,000	25
과학이 보인다	양재승	2013	2,100(개정판)	17,000	264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	이철호, 문현팔, 김용택 이숙종, 이꽃임	2014	1,800(2쇄)	15,000	274
나트륨, 건강 그리고 맛	이숙종, 이철호	2014	3,000(2쇄)	8,000	430
건강지킴이 보리의 재발견	신동화, 김영수, 최재성	2015	1,000	8,000	539
GMO 바로알기	박수철, 김해영, 이철호	2015	8,500(5쇄)	12,000	216
쌀의 혁명	이철호, 이숙종, 김미령	2015	1,000	10,000	28
광복70년 인생70년	이철호	2015	1,000	12,000	12
식량낭비 줄이기	채희정, 이숙종, 이철호	2016	1,500(2쇄)	12,000	290
목소리와 견해	Navarro M.J.	2016	1,500	12,000	175
한·중·일 식량정책 비교	고재모, 김태곤, 이철호	2017	800	16,000	86
콩 스토리텔링	한국콩박물관건립 추진위원회	2017	1,500(2쇄)	20,000	316
식량생산 제고를 위한 신(新육)종기술	한지학, 정민	2017	500	12,000	135
21세기 구원투수: 고구마	곽상수, 박성철, 이준설	2017	1,000(2쇄)	12,000	228
세계 곡물시장과 한국의 식량안보	성명환, 오정규, 김민수 임호상, 이철호	2018	800(3쇄)	18,000	183

표 이어서 계속

도 서 명	저 자	초판년도	발행부수(판수)	정가(원)	현재재고
4차 산업혁명과 식량산업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2018	1,000	16,000	197
Yes to GMOs 생명공학기술의 진실	Borut Bohanec & Miššo Alkalaj	2018	2,000	12,000	85
건강100세 장수식품이야기	박상철, 이미숙, 이철호 김경철, 신동화, 박현진 권대영, 채수완	2019	1,500	18,000	32
요셉의 지혜 한반도 식량비축 계획	이철호, 위남량, 최지현 임정빈, 안병일	2019	1,500(2쇄)	16,000	44
비만과의 전쟁	이철호	2019	1,100(2쇄)	12,000	21
식품산업과 식량안보	박현진, 김덕호, 권오란 김현옥, 박태균, 이철호	2019	1,200(3쇄)	18,000	205
알기쉬운 방사능 · 방사선 & 식품안전	권중호	2020	500	16,000	4
식품미생물학사전	하덕모	2020	300	30,000	품절
국가비상시 식량안보계획	이철호, 최지현, 박성진 이남택, 송성완, 박태균	2021	1,000(초판)	18,000	54
한국의 발효식품 – 역사, 문화 그리고 가공기술	신동화 편저	2021	1,000(2쇄)	20,000	5
식품위생안전법규와 제도	전은숙	2021	1,000(2쇄)	18,000	418
한국식품사연구	이철호	2021	1,000(2쇄)	30,000	166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편	2022	500(초판)	22,000	3
한국 식품산업의 세계 비전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편	2022	500(초판)	27,000	120
한국 근현대 식품사	이철호	2023	1,000(초판)	32,000	277
식량과 정책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편	2023	500(초판)	28,000	169
식품과학자가 바라본 우리음식과 식품사업	신동화	2023	300(초판)	12,000	79
21세기 새 역사의 창조를 위하여	이철호	2023	1,000(초판)	18,000	269
八十人生	이철호	2024	500(초판)	10,000	29

www.foodsecurity.or.kr

KFSRF 한국식량안보 연구재단

제단소개 연구지원사업 출판사업 국민운동 소개 세미나 자료실 동영상 갤러리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공지사항 바로가기 고려대학교 식량안보연구소...

twitter

제단소개 한국식량안보 연구재단

제단소개
한국식량안보 연구재단은 세계적인 국제학술을
제작하여 중요한 학제적 식량안보정책과 수급을
위해 사용자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연구지원사업] MORE
· 2024년도 지원연구과제 - 전분산업의...
· 2024년도 제4차 지정연구과제 확정
· 대한민국 식량안보특별법 초안 (제단...
· 2023년도 제4차 지정연구과제 확정

[+제작] MORE
· 제2024 식량안보세미나 - 전분산업의...
· 제2024 식량안보세미나 - 식량안보...
· 민족과 농경이 된 세미나 - 기획번호...
· 유엔한국학생협회 모의 유엔 회의 개최

[+뉴스레터] MORE
· 뉴스레터 제170호
· 뉴스레터 제169호
· 뉴스레터 제168호
· 뉴스레터 제167호

식량안보비축기
국민운동

제단소개
한국식량안보 연구재단은 세계적인 국제학술을
제작하여 중요한 학제적 식량안보정책과 수급을
위해 사용자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제단소개
한국식량안보 연구재단은 세계적인 국제학술을
제작하여 중요한 학제적 식량안보정책과 수급을
위해 사용자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제작] MORE
· 이효호 농수산부 중신한인(고려)대...
· Food in the Making of Modern Korea...
· 80th Anniversary of the...
· 21st National Conference to Promote...
[+제작] MORE
· 대한애국연인의 원시토기문화에 관한...
· Ethnic fermented foods of the world...
· 인류는 시장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 김치의 효과

[+제작] MORE
·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10년을 돌아보며...
· 열성산, 수매장과 새설정 일요...
· 수천억 원인 새 종자, 국내포기하고...
· 한식의 세계화, 그 가치와 친환경 함께...

도시 식안 연
제단소개
상/담/문/의/전/화
궁금하신 철무엇이든 친절히 답변해드립니다.
02.929.2751
FAX 02.927.5201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 109A호 | 02841
COPYRIGHT © 2010 FOODSECURITY ALL RIGHT RESERVED.
Email: foodsecurity@foodsecurity.or.kr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관(동관)109A
TEL: 02-929-2751 FAX: 02-927-5201 E-mail: foodsecurity@foodsecurity.or.kr